

노무현 대통령 자전 구술

1. 구술일자: 2001년 11월 6일
2. 구술장소: 서울 여의도 금강빌딩 자치경영연구원 사무실
3. 구술분량: 14분 16초 / 일부 공개
4. 주요내용: 지역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생각

나는 내가 당선되는 것이 [지역갈등의]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지역구도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말한 일이 없고, 무언가 지금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는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진지하게 국가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얘기하면 호남 사람들도 내 얘기에 일단 귀를 기울여줄 것이다. 물론 영남 사람들도 일단 귀는 기울여줄 것이다. 과거에 호남 사람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을 의심하던 때보다는 나한테 대해서는 불신이 좀 덜 하지 않겠느냐. 지금(2001년) 영남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을 불신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신뢰가 높지 않겠는가. 그건 맞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분열을 조장한 사람들과, 많은 정치인들이 이것을 조장해오는 가운데 분열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 노력해왔던 사람의 과거에 대한 조그마한 신뢰,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다. 이것이 서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서로 대화를 열어나갈 수 있는 밑천으로써는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거 아니냐. 작은 것 같지만 이건 엄청난 재산이고,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해볼 수 있는 자산이다. 누가 이거 가진 사람이 있느냐. 누가 가진 사람 있느냐. 지금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분열을 계속 조장해왔지 않습니까? [지역감정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정서거든요. 현저히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출발 위에서, 이 작은 출발선의 1미터의 차이는 말하자면 작은 삼각형의 작은 1미터의 차이가 거리를 연장시키면 수백 미터, 수 킬로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작은, 이렇게 작은 일 같지만 이 차이들을 구분해서 밝혀서 차이를 그야말로 의미 있게 보고, 그것을 살려나가는 데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있는 것이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지고 동서를 하나로 확 묶어주고 가시진 않습니다. 정치인에게 무슨 한 방에 한꺼번에, 기합 한번 탁 넣어서 천지개벽을 하는 둔갑술을 요구해선 안 됩니다. 작은 차이 하나하나

에 그 가치와 의미를 따져나가는, 쳐다보는 그런 진지한 자세가 진지한 유권자의 선택이, 분별과 선택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분명 달라져요. 분명 엄청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기 지도자들이 백성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추기면 왈각 기울어버리는 것이 백성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언제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재의 역사가 오래 못가는 이유는 백성을 오래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거짓말의 순간순간 백성을 속이는 것은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못가지요, 오래. 영원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했죠? 역시 링컨(Abraham Lincoln)의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잠시는 속일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의 역사를 분열의 역사로, 독재의 역사로 이렇게 이어오는 데는 다 매 시기 지배세력들의 속임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임수는 지금도 활개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분열시키는 사람,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 책동이 지금도 활개친다할까 기세를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당정분권을 얘기했지만 권력의 분산, 지방자치를 통한 중앙정부 권력의 지방분권화, 그 다음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권력의 분권화. 당과 정치, 국회 사이에 최대한의 분권화, 힘의 균형 이런 것. 이런 그 제도적인 분권화, 모든 영역에서의 분권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제가 중대선거구제 얘기했었죠, 그죠? 중대선거구제 해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당적의 편중현상이 안 생기도록, [지역감정 문제에] 이런 정책들이 다 쓰이지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재편까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구역의 재편! 이 모두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분권화라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맞고, 행정구역 그것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특히 정보통신 발달로 재편할 수 있습니다. 재편,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단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분권과 지방행정구역 재편)은 상당히 우리 사회 발전의 방향에 다 맞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본시 지역 간 갈등이 있죠, 있는데 그것이 더 심해진 것은 권력의 집중, 권력 집중의 구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의 구조가 지역감정을 아주 더 심화시켜놨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지역 사람이 정권을 계속 잡고, 그것도 그 정권이 보통 정권이 아니고 말하자면 모든 것의 만능의 정권이었던 거거든요, 만능의 정권. 안 되는 일이 없는 정권이었어요. 심지어는 합법적인 것 말고 부정부패까지도 안 되는 게 없어요. 불법적인 것까지도 안 되는 일이 없었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마침내 한 지역 사

량이 백주 대도시 한복판에서 총질까지 당했으니. 국민들한테 총질을 할 수 있는, 이게 지역감정이 보통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가해세력은 가해세력 대로 뭔가 방어 심리가 있고. 얘기가 흘러가버렸습시다만, 집중된 권력이 지역갈등, 지역적 우월감이나 소외감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분권화하는 건 아주 여러 방면에서 분권화해야 되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 변화의 조류에, 우선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분권화라는 것은. 또 미래에 새로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좀 더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이 분권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권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히 한번 접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일 장애물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지역구도로부터 기득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지역구도에서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공증받기 쉽고 단정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걸 포기해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중대선거구제 같은 것은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과 중복되고 되돌아가지만, [앞으로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지 않고 또 국무총리도 좀 큰 권력을 행사하고.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지금 임명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국회의장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당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말이죠. 국회의장도 당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당에서든 국회에서든 선출되고. 국무총리도 경우에 따라서 내각제처럼 당에서 좀 이렇게, 다수당에서 지명할 수도 있고. 대통령 권력을 적당하게 배분하고. 못하란 법이 없지요. 이렇게 되지만 돼도 거기(요직에) 가는 기회는 각 지역이 골고루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이 대통령감이 없으면 국회의장감이라도 있고, 당에 또 원내총무감이라도 있고 말이죠. 원내총무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발언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을 때, 대통령 한 자리를 놓고 이렇게 사생결단을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권력의] 분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계속 선거 때문에, 표를 모으기 위해서 부추기지만 않으면 이 문제는 그냥 없어져버립니다.

[그런데] 점차, 점차 합리적 사회로 나오면서 해소돼나가야 할 문제가 오히려 더 증폭되어버렸단 말이죠. 평등의 사회와 합리적인 사회로 이행되면서 없어져야 [될 문제가] 개방적인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만 폐쇄적인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은 선거가 정치쟁점을 가지고, 주로 정책을 둘러싼 정치쟁점을 가지고 선거를 하질 않고 비정치적 쟁점을 선거에 많이 끌어들이는 것. 아까 말했던 전국 국회의원 총선에 전부 지역 다리, 길 [놓겠다는] 얘기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지역발전 얘기

로 몰아버린다든지 아니면 호남이나 영남이나 하는 지역감정 가지고 부추긴다든지 그런 거. 그런 것이 있으면서 아까 말했듯이 권력이 집중되고, 모든 인사에서 호남이 소외되면서 이(지역감정) 발단이 생긴 거지요.

정치인들만이 욕심을 버린다고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아니고. [지역]특성을 살리되, 그건 개성으로 승화시켜나가되 정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외와 억압 같은 거라든지, 불합리한 집단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정서는, 아무리 해도 정서로 남는 부분은 남겨두는 것이죠. 남겨두는 것이고 남겨두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합리주의 문화를 다듬어가는, 합리주의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해소되는 부분은 해소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대로 문화의 흐름에 맡겨야죠. 다만 지금은 부메랑 효과로부터 정치권이 탈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치인이 득 보려고 지역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잠복해있는 놈을 부추겨가지고 지역감정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안되게 생겼잖아요. 모든 것이 지역감정 [때문에], 마이더스(Midas) 손처럼 지역감정만 개입되면 모든 정치적 논리가 다 파괴되는 그런 지금은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죠. 파괴의 시대, 붕괴의 시대라고 할까요? 붕괴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주술의 시대입니까? 주술의 시대. 지역감정의 주술에 걸리면 모든 것은 다 한꺼번에 파괴되는 이런 주술의 시대, 이것을 벗어나야죠.